전북연구원 한국 속의 한국, 생동하는 전라북도! **보도자료**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 286-9206)
http://www.jthink.kr

보도시점:2016년 11월 18일(금) 12시부터

▪ **문의** : 창조경제산업연구부 이강진 연구위원 (063-280-7141)
▪ **담당실장** : 연구실장 김보국 연구위원 (063-280-7161)

한미 FTA 재협상 땐 한우, 쌀 통상압력 우려

전북연구원,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'전북영향' 분석

○ 미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과 경제통상 압박으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와 더불어 한육우와 쌀에 대한 통상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었다.

○ 전북연구원(원장 강현직)은 18일 발간된 '이슈브리핑(통권 154호)'에서 트럼프 정부 정책을 전망한 결과 FTA 재협상 및 대중국 경제 통상 압박에 따라 국내 제조업 등의 산업, 특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. 전북은 FTA 재협상, 무역구제 강화로 인하여 수출이 1% 감소시 전북의 대미 주요수출품인 자동차/부품, 석유화학, 철강분야에서 0.102%의 GRDP 감소효과가 예상되었다.

○ 또한, 미국내 투자 확대 및 감세 정책으로 미국 자본의 U턴화가 실현될 경우 국내 신규 투자 위축 및 기존 투자 회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. 이로 인하여 1%의 해외투자 감소시 전북 GRDP의 0.035%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.

○ 한편, 농업분야에서는 TPP 철회는 국내농업에 긍정적이지만, FTA 재협상으로 한육우의 전면 개방과 쌀에 대한 수입 개방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.

○ 이와 더불어 GDP 대비 국방비 분담 요구에 따라 국내 복지 및 SOC에 대한 국가 투자 감소가 예상되며, 지역마다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.

○ 전북연구원 이강진 박사는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정책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였으므로 상황별 시나리오를 작성해 대응해야 하며, 대미국 통상리스크 완화 위해 동남아, 아랍국가 등과의 교역강화로 교역구조의 다변화가 필요하며, 중국, 동남아 등 주요 교역국의 전북에 미치는 간접효과 분석, 한미 FTA 재협상에 대비한 산업별 영향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과 더불어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.

○ 그러나, 트럼프 정부의 총선 이전 공약과 이후의 행보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어느 정도가 입법화 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확한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근거 없는 예측과 예단으로 국내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.

별첨. 이슈브리핑 154호